

전환기의 항공력의 역할 (Airpower in the Transition Era)

권재상*

Abstract

If one were to say that war is political in its nature, then war could be one of the several ways of achieving political goals. Thus, the aspect of wars will, in certainty, be altered by the changes in political environment. Wars in the past broke out mainly due to ideological differences that ran to extremes and were of high intensity. However, wars today show such restraints as controlling them beforehand or during the war in anticipation of the post-war situation.

The trend of ideas to actualize such wars in the effective operation of airpower is on the rise. Airpower normally possesses speed and operative flexibility as well as capability of destruction, so it is possible to destroy the politically declared targets clearly.

Previous airpower was merely employed as means of helping to vertically detouring the spatial obstacle that the ground forces encountered. Over the years, due to the speedy improvement of aviation technology and of ideas concerning wars in space, more advanced application has been developed, but they also were nothing more than an auxiliary role to facilitate the ground forces, that needed a longer effective range of firepower and did not become forces with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at is, the fact of decisive war that

* 국방참모대학

makes its outcome.

However, under transitional strategic environment like that of the present, Airpower possesses not only the capability to operate as a decisive means of war but also as theories to support it. The advancement in air technology has enabled supremacy over targets in depth, and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technology has empowered the improvement of degree of destruction but also triumphant war by means of an overwhelming supremacy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Thus, the method of systematic destruction that accomplishes the stated goals while rejecting the damage of accumulative destruction has been realized.

The progress of such a concept has also proved that the counter-force strategy that has been developed in nuclear strategy is useful in conventional warfare as well.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under today's strategic environment airpower is an outstanding means of military strategy that can deeply affect to achieve the national objectives.

1. 문제의 인식

항공전략에 관한 문제를 이론화한다는 것은 아직은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 같다. 그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근거로 할 때에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항공관련 기술이 너무 급격히 발전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이론의 발전을 도모할 겨를이 없었다.

둘째, 하늘을 난다는 강한 열정과 욕구 때문에 특정한 항공기의 발전에 몰두함으로써 보편적 논리를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셋째, 특정 전쟁의 사례 연구에 치중하여 항공전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도 보편적인 접근

의 시도가 많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는 결국 항공력에 대하여 전체적 접근을 통한 본질적 연구를 허용치 않았음으로써 다변수 소사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그 역사의 일침함에 비견할 정도로 이론화 작업을 늦어지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상군과 해군이라는 전통적인 군대의 구조에 "하늘에서 싸우는" 또는 "하늘을 통해 싸우는" 새로운 개념이 투입되고 부터는 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된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항공력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가의 방위계획을 입안하거나 군사력의 건설 및 운용계획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항공력은 아직도 그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군사적 수

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를 보장해야 하는 방위수단으로 쉽게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론의 개발이 없이는 그러한 의심은 풀 수 없음은 당연하다.

보편적으로 갖는 항공력에 대한 의심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충분방어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하늘을 잘 이용하면 위로 부터의 공격에 의해 전쟁의 방법론은 매우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육군과 해군의 중요성을 그 만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즉, 전통적으로 방어 임무를 수행해 온 육, 해군의 역할을 공군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비용대 효과의 문제로서 항공력은 엄청난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필요로 하므로 그것에 따르는 소요경비문제가 방대하므로 다른 수단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비용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공군력 또는 항공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공군은 지역을 점령할 수는 없고 도시를 점령하거나 방어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정확도도 의문이다. 공군의 재래식화력은 지상군의 그것에 비해 작다. 공군은 다만 정보수집에 이용... (중략)

우군의 후방에 대한 적의 정찰을 방지하려면 공군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공군은 많은 자원을 정보 수집과 적의 그러한 활동을 방지하는데 투자한다.”¹⁾

항공력에 대한 이해가 이같은 상황에서, 논자는 항공력의 현실적 위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여러나라들의 입장을 통해 간추려 보고 나아가 변화되어 가는 국제전략적 상황속에서 항공력의 역할을 조심스럽게 새로이 조명해 보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 한정된 범위내에서 타당성을 추구해온 항공관련 논의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항공력의 운용사상을 일정한 틀속에 묶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이 시도는 완전한 논리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시안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전쟁의 경험과 교훈

항공력이나 항공전략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전쟁을 수행하는 보편적 방식에서 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통상적으로 전쟁을 “상충하는 두 의지간의 조직적인 무력 투쟁”이라고 정의한다면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대의 의지와 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그 두가지의 조화를 어떻게 깨뜨리느냐에 따라 전쟁의 수행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註1) James F. Dunnigan, *How To Make War*(New York : Quill, 1988), p. 139.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큰 지향이 있을 것이다.

먼저 적의 저항수단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함으로써 저항의지를 포기하게 하는 방식과, 다음으로 적의 저항의지를 먼저 마비시킴으로써 저항수단을 무력하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자와 같이 적의 저항수단을 먼저 파괴함으로써 현실적 무력감을 느끼게 한후 저항의지를 박탈하고자 하는 방식의 전쟁은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지는 수단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으로 수단의 상실은 주관적인 의지를 현실화하는 매개체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속수무책의 상태에 처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저항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수행방식은 상대방의 전력이 어느정도 까지 파괴되어야 싸움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파괴의 정도 문제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설사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도 저항을 계속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며 장차에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시말해서 조직적으로 잘 훈련되고 사상적으로 잘 무장되거나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진 상대와의 싸움에서는 위와 같은 군사력을 철두철미하게 파괴함으로써 승리를 얻겠다는 방식의 전쟁은 곧 섬멸전의 아이디어와 전통을 이어받는 것으로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식으로 표현한다면 “절대전”으로 치달을 위협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게 된다.

다른 한편 상대의 전쟁의지를 마비시킴으로써 저항수단을 무력하게 하겠다는 식의 전쟁은 근대적 의미의 전쟁이 태동한 후 본격적으로 시도된 싸움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훈련되고 잘 무장된 대규모의 군대끼리 전선에서 맞붙어 싸운다면 많은 시간과 물자의 소모는 물론 수많은 인명의 살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전쟁 당사국들에게는 물론 세계적 수준의 불안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전쟁이 현실적인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가능한한 최소한의 희생위에서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쟁은 가능한 효율적으로 치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같은 맥락에서 강철은 인명보다 값이 싸다는 일종의 인본주의적 발상이 전쟁사상의 저변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전쟁의 실제현상인 전투는 과거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즉, 종래의 정면대결 양상을 탈피하고 간접접근과 간접대결이 보편화되고 기동에 의한 결전이 전투현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적이 준비된 전선에서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또는 적이 이동중에 있을 때 미리 격파하는 것과 적의 후방을 미리 공격함으로써 충격, 혼란, 마비현상을 증폭시켜 소기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는 지난날의 수많은 전쟁경험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 또한 파괴력의 크기나 정확도 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보인 핵무기의 등장과 고정밀도의 현대적 통상무기들이 사용될 경우, 어느 한편이 피멸상태에 이를 수 있음은 물론 다른 한편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류는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벗어나서 현실적 세계관을 갖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당연히 정치적 전쟁관을 현실적 전쟁관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실적 전쟁관을 수용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전쟁양상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다" 혹은 "승리한다"는 뜻 역시 다르게 수용함을 의미한다. 전통시대의 고전적 의미로서의 승리가 적의 저항 수단을 파괴하고 영토를 점령함으로써 전쟁의지를 포기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대적 의미의 승리개념은 자국의 의지를 상대에게 강요하는 정도에서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전쟁 당사국 간의 주요 현안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상대가 안정하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하는 것"을 승리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상대를 피멸시켜 폐허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를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적의 의지를 극단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초기의 항공전략 사상가들은 항공력의 역할을 앞에서 말한 전쟁의 두가지

지향에서 대체로 후자를 지향한 것 같다.

"공중공격이 사기에 미치는 효과는 물질적 영향 이상으로 전쟁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무자비한 연속공격이 공중에서 가해진 나라에서는 사회기구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공포의 고뇌를 끝내기 위해 일어서서 전쟁의 종결을 요구하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육·해군의 동원이 완결되지 않은 동안에 닥쳐 올 것이다."²⁾

위와 같은 진술이 앞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초기 항공전략 사상가들의 생각, 즉, 비행기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 행해졌을 때는 의례 공군과 지상군의 관계 및 각군의 비율에 관한 편제상의 논의가 뒤따랐고 그것은 곧 항공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의 차이가 되어 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항공전력 예찬론자들과 회의론자들 사이에 격론을 일으켰다. 항공전략이 일상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수 없었던 근래의 전략상황에서 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던 항공력에 대한 논의들은 Gulf전쟁에서 결정적인 활약이 있는 이후 그 결론은 대강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귀결되면서 말없이 시인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오게된 것 같다.

그것이 첫째는 항공력을 잘 수용하면 전쟁의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고

註2) Giulio Douhet, *The Command of the Air*, Translated by Dino Ferrari (New York : Coward-McCann, Inc. 1942), pp. 57-58.

다른 하나는 항공력의 위력이 전쟁술에 추가되면 전후방 모두가 전장화 된다는 자멸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기 때문에 그 만큼 전쟁의 빈도가 줄어 들고 따라서 억제력 행사에 의한 국제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으로써, 그에 따라 항공력은 사용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 그 자체가 커다란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견해의 차이는 제 2차 세계대전에 임한 각국의 태도를 보면 명확하게 구별된다. 전쟁수행 방식에 관한한 제 2차 세계대전은 제 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분석 평가한 후 준비된 상태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항공력의 운용에 관한 아이디어는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전쟁상황으로 돌입하게 된 세계 각국들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항공력(The Air Power)의 가능성과 잠재역량을 넉넉히 평가해 본 바 있기 때문에 자국의 여력과 지리적 위치, 공업능력등을 고려하여 각자 나름대로의 방안들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

독일의 경우 :

그들은 항공력을 전술적으로 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동쪽의 러시아와 서쪽의 영국, 프랑스를 동시에 적으로 맞아 싸워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으므로 전선에서의 조속한 결전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항공력에 의한 전술지원이 중

심이 되는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었다.

전략폭격은 대체적으로 적의 후방에 대한 중심 깊은 공격(Deep Strike)으로 이루어지므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에 대하여 공격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제한된 능력 범위에서는 우선순위의 안배가 불가피해진다. 그러다 보면 전략적 반응이 더디 나타날 수도 있다. 반면 전술적 공격은 비교적 명확한 표적에 대해 직접적으로 항공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양면전쟁의 위험 부담이 있던 국가에서는 후자를 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즉 전선에서의 불패가 보장되어야 전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다는 가정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당시의 여건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원의 제한때문에 많은 경비와 물자가 소요되는 대형폭격기 보다는 전투기나 경폭격기의 양산에 더 많은 노력을 배분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소련의 후방과 영국의 군사시설에 대해 충분히 공격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독일 공군이 두혜(Giulio Douhet)⁴⁾의 주장처럼 적의 공군력을 지상에서 파괴하고 적의 항공기지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상군과의 협동작전에 시종 치중하였

註3) Peter Paret, eds.,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Princeton Univ. Press, New Jersey, 1986), p. 626.

4) Giulio Douhet (1869~1930) : 이태리 출신의 항공전략 사상가 "Command of the Air" "The War of 19" 등의 저서를 내는 등 항공기의 전략적 사용과 공군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다. 독일 공군이 두해의 이론에 따라 항공전력을 운용한 사례는 1940년의 영국 본토 공격때 뿐이었다.⁵⁾ 그러나 그것도 몇차례에 걸쳐 목표를 변경하고 전력을 분산함으로써 또한 영국 공군의 효과적인 방공작전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다만 그것이 보다 대규모로 장시간 동안 지속 되었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서 양 전선에서의 양면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천술지원 임무를 더 중시했다 하더라도 독일 공군이 그와 같은 항공력 운용 양상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이 발전하기 시작한 항공력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부족한 지상군지휘관 출신의 고급장교들로 공군을 창설케한 NAZI 독일 지휘부의 결정에 문제가 컸던 것 같다.⁶⁾ 많은 양의 폭탄을 적재하고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대형폭격기를 만들만한 충분한 기술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전을 직접지원하는 임무에 소용되는 경폭격기와 전투기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한 것은 의사결정 기구내의 주요 인물들이 항공력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채 지상군 지원수단의 일부로서 공군을 편성, 운용하고자 한 전략사상의 한계를 단적으로 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

영국은 일찌기 항공관계에 높은 관심을 보인

나라로서 민간 차원에서는 많은 관심이 있기는 하였다.

독일과의 경쟁상태를 인정하고 전쟁에 대비하기는 하였지만 그들 역시 항공(The Air)에 대한 넉넉한 이해와 자원의 배분은 없었다. 다만 그들이 독일과 달리 생각했고 또한 대독일전을 수행하는데 주요한 방식으로 적중환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지리적 위치에 관한 이해였다. 즉, 독일은 연합국측에 의해 둘러 싸인 형상이었으므로 각종 전쟁대비물자의 한계, 국가경제를 지탱할 일반물자의 제한등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해상과 공중을 통한 차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독일의 공업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곧 승리의 지름길임을 간파, 전략 폭격에 의한 전쟁 잠재력의 파괴를 노렸다.

소련의 경우 :

소련의 경우는 그들이 상대해 싸운 독일과 매우 흡사하게 전술적운용을 중시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휘체계면에서는 독일의 그것을 따르지 못했다.

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이 한스 폰 쾨크(Hans Von Seeckt)의 재군비 노력으로 군대를 재건해 나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긴밀했다. 당시 독일은 베르사이유 체제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금지조치가 엄격하여 마음 놓고 군사력을 키울 수는 없

註5) Sea Lion Operation : 1940년 히틀러는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 육해공 삼면작전을 구상 상륙군의 발전 이전에 공군에 의한 준비공격을 시도했으나 목표의 분산 및 영국군의 치열한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6) 영국의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30년 전쟁의 교훈이었다. 당시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농업경제가 전쟁으로 파탄되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독일이 후발 산업국가로서 영·불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그러한 제약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재군비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전차의 개발 및 시험, 항공기의 연구 및 제작, 화학무기의 연구 및 각종 군사사상의 연구발전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때문에 군사사상과 군사개념면에서 앞서 있던 독일의 그것을 러시아가 배운것은 당연하다.

그때 독일은 항공력을 전술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중시하기는 하였지만 독립된 조직의 공군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강력한 지도자 괴링(Goring)의 지휘하에서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요구에 따라 집중운영과 분산배치가 가능했으며 여러 경우에 그같은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Sea Lion 작전의 경우,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의 공수작전, 크레테에서의 공정작전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독일의 그같은 전력운용 방식의 진의를 간파하지 못했고 전쟁이 끝날때 까지 항공전력을 지상군 지휘관들에게 나누어 주어 각급제대 지휘관들의 재량으로 항공전력을 운용하게 함으로써 항공력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해 버렸다. 그들은 항공력을 지상군 전진전면의 돌격포로서 또는 방어진에서의 후위방어대 정도로 운용했다. 그와같은 전력운용사상은 바바로사작전(Operation Barbarossa)을 편 독일의 공격 앞에 바바로사작전이 시작되던 첫날 전체전력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800여대의 항공기를 지상과 공중에서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유발했다.”

그외에 일본과 미국의 항공력 운용방법은 영국에 대한 독일의 경우 및 독일에 대한 영국의 경우와 대단히 흡사하여 주장에 따라서는 항공전에 의한 결전의 묘미를 이룬 사례라고까지 평가하는 오늘날의 연구자들도 있다.

전후에 있었던 여러 전쟁에서 항공력을 운용한 사례를 보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체득한 뼈저린 교훈을 그때까지도 충분히 반추하지 못한 느낌이 없지 않다.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의 경우는 초전의 공중우세를 종전때까지 지속할 수 있기는 하였지만 중공과 소련이라는 불가침의 성역을 인정해야 하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좋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지상작전의 유동성에 부응하는 제한적 운용의 수준에서 어정쩡한 승리로 끝낼 수 밖에 없는 경우였고, 월남전의 경우 또한 같은 이유로 발전된 항공기술력을 전승으로 연결할 수 없게된 대표적 사례로 간주된다. 항공력을 운용할 때 표적선정 및 공격방법에서 부터 시작하여 출격횟수, 출격시기 및 시한, 사용무기, 전력규모등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통제받음으로써 항공력의 특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명확하게 나타낸 사례였다.

그러나 3차 중동전의 경우는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이 볼때에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이스라엘이 대신해 주는 후련함을 느끼게 해준

註7) Barbarossa 작전에 대해서는 Alan Clark의 Barbarossa : The Russoan-German Conflict 1941~1945 (London : Papermac, 1985)을 참조

좋은 사례로서 항공력 자체의 논리를 극명하게 표출한 경우였다.

전쟁은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하되 일단 개전되었다면 작전은 그 자체의 논리대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중동에서의 성공의 이유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항공력에 의한 결전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확연히 규명한 것이 걸프전(War in Gulf)이라고 할 수 있다.

3. 항공력에 거는 3가지 역할기대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공력에 관한 보편적 이론을 도모하기에는 아직도 다변수 소 사례의 문제로 인한 이해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더우기 전략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논자는 각 사례들의 개별적 독특성을 무시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기준에 의한 분석적 맥락의 정립을 시도한다는 태도로 항공력의 운용실례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 봄으로서 항공력의 역할변경을 추론하고자 한다.

가. 수직적 우회 수단으로서의 역할

오늘날에는 항공력(The Air Power)이라는 용어가 공군(Air Force)은 물론 국가의 항공 산업을 비롯한 항공관계 잠재력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애초에 사용

된 항공력이란 용어는 공군이라는 독립된 군사력이 조직 편성되기 이전에 하늘을 이용하는 수단이 발달되기 시작될 때 부터 사용되던 원시적인 용어로서 그 뜻의 분명한 규명(Define)이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항공력이란 용어 그 자체는 적어도 1908년에 간행된 H. G. Wells의 War in the Air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 발견되는 것은 동력 비행기가 비행하기 훨씬 이전인 19세기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⁸⁾ 부분적으로 기구나 비행선이 전쟁에 활용되던 때부터 그러한 사고(Thinking)는 있었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시작하기도 십수년 전인 1892년 영국의 공병장교 Fullerton소령은 시카고 박람회에서 있었던 군사전문가회의에서 "정부는 전격전을 준비하는데 항공기가 필요하고 그러한 전쟁에서 해상전과 지상전은 제공권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해군의 함대계획, 지상전장에서의 육군의 소산, 요새지 구축의 새로운 기준에 변화를 요구하는 전쟁기술의 혁명을 주장했다.⁹⁾

어떻든 하늘에서의 결전을 주장한 선각자들의 예언적 탁견은 당시로서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여 항공력이 발전하는데는 더 많은 이해와 격려가 필요했었다. 그도 그럴것이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에도 항공기는 기술적으로 취약하고 기능적으로 미약하여 매우

註8) H. G. Wells, *The War in the Air*(London : George Ball & Son; New York : The Macmillan Co., 1908), pp. 167-258.

9) Fullerton소령에 대해서는 Alfred F. Hurley의 *Billy Mitchell : Crusader for Air Power*(Bloomington, 1975)의 pp. 141-142, 175를 참조

불안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의 역할에 거는 기대는 우스꽝스러울 정도였다. 항공기를 새로운 무기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전통적인 전쟁수단에 간단히 추가되는 한 부분' 정도로 간단히 취급해 버렸다. 그러나 전쟁기간중에 항공기는 속도, 고도, 항속거리, 탑재량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으며 그 안전도는 야간과 어느정도의 악천후 상황하에서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한 후에야 비로서 항공기를 지상군 지휘관의 시계(Field of View)를 조금씩 넓혀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던 데에서 좀더 다양한 사용처를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아이디어가 정찰에 이어 포사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포사격조정, 연락비행임무 등이었고 특이한 것은 적 항공기의 그러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추적임무로써 오늘날의 임무형태로 설명하자면 요격(Pursuit)에 해당하는 것이 개발되었다. 당시로서는 대공포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군의 위치를 탐지하거나 아군의 공중활동을 탐지하는 침입자에 대하여 승무원이 휴대하던 소화기에서 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화기를 탑재하여 사용하여 보다가 후기에는 발전된 항공기용 기관총을 장착하여 격퇴를 시도한 것이었다.

이때에 시도된 또하나의 특이한 작전형태가 지상군의 전진을 지원하거나 적의 전진을 좌절시킬 목적으로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항공기에서 기관총을 쏘거나 폭탄을 투하하여 지상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

격방법은 통상 적의 병력 집결지, 보급품집적소, 주요교차로, 지휘소, 철도 등 적 전선의 바로 후방 또는 일정한 깊이까지에 있는 표적들에 대하여 행해졌다. 오늘날은 그러한 임무를 통상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이나 전장차단(Battle Field Interdiction)이라고 하지만 당시의 그러한 작전양식은 지상군이 지형지물의 장애, 또는 적이 고의로 설치한 진지, 참호, 철조망 등 인위적 장애물로 인하여 전진이 곤란하거나 관측이 어려운 경우 및 공격해야 할 요구는 있으나 화포의 사정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더러 이용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상군의 공간적 한계를 수직으로 극복하는 수직 우회의 보조수단으로 주로 사용하는 정도였다.

항공력을 그와같이 사용한 것은 당시 교착된 전선을 극복하기 위한 대단히 바람직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으며 전쟁술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초기의 이론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때의 항공전 아이디어들은 미흡한 부분들이 매우 많았지만 이제 겨우 태동한 항공기를 그만큼 운용할 수 있었다는 착상 자체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단한 것이며 그 이후의 급격한 발전의 토대가 그때에 이루어졌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나. 화력의 연장으로서의 항공력

항공력을 운용하는 두번째의 지향으로서 화력의 연장개념으로서의 항공력의 역할기대를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후티어전술(Oscar von

Hutier)을 그 전형의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후티어전술은 교착상태에 빠졌던 서부전선의 전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독일이 취한 마지막 조치였다. 철조망과 기관총으로 잘 보호된 참호들은 서로간의 전진을 방해했고 독가스는 이것을 더 강화했으며 능력부족의 공격측은 그것들을 돌파할 수 없었다. 이때 독일측은 포병화력을 집중하여 보병부대의 전진전면에 탄막사격을 제공하여 전진활로를 개척하고자 했다. 초기에는 대규모의 병력과 기습의 충격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결정적인 고비에서 예비대의 부족과 포병화력의 기동력부족으로 보병의 전진속도를 뒷받침해줄 수 없게되어 이 전술개념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후티어전술의 실패는 서부전선에서의 결정적 패전은 물론 전황전체의 기울어짐을 뜻하는 것이었다.

NAZI독일은 후티어전술이 화력지원과 예비대의 부족이라는 결정적인 맹점때문에 전과확대를 불가능하게 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 발전시킨 전격전(Blitzkrieg) 개념을 구상하였고 그것을 1939년 9월 1일 폴란드침공때 시범적으로 사용하여 오늘날에는 모든 군사작전의 전형으로서의 틀을 굳히게 되었다.¹⁰⁾

전격전은 지상전력과 공중전력이 적절한 조화와 협력속에서 적당한 템포를 유지하면서 협조된 공격을 가하므로써 전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상군이 전진

하고자 하는 공격전면에 대한 화력의 제공은 후티어전술에서와 다를바 없으나 그것이 지상군 자체의 화포 뿐만이 아니라 전술공군에 의해서 지원된다는 것이 추가된 사항이다. 이는 후티어전술이 실패하게된 요인중 포병화력의 기동성 부족에 대한 대안입과 동시에 지상군의 전진속도에 신속히 조화되는 적재적소의 화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군은 이같은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일찌기 소련과 협조하에 재군비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융커스 급강하 폭격기(Ju-87)와 같은 전술지원을 전담하는 우수한 항공기를 대량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적의 전선 직후방에 대한 공격으로 적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재보급을 할 수 없게 하며, 지휘소와 교통통신망을 파괴함으로써 혼란과 마비현상을 초래하게 하여 아군의 전선전투효과를 크게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적의 저항력을 급격히 저하시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격을 전혀 시도할 수 없게,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실시되므로 전격전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이다.

전격전에서는 항공력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먼저 적의 방어태세와 기동의도를 탐지하기 위하여 전투가 전개되기전 부터 전투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정을 살피는 전술정찰형태의 임무와, 지상군이 전진하고자 하는 정면에 대해 화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상군이 파괴하기 어렵거나 돌파하기 곤란한 표적들을 제거하여

註10)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 Gulf전에서 다국적군 등이 행한 작전이 그 좋은 예이고, ALB나 OMG도 전격전의 발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근접항공지원의 형태, 그리고 전선에 대한 보급지원을 차단함으로써 전후방을 분리시키는 효과로 전선의 전투력을 말라 죽게 하는 후방차단임무 등이 있다. 그리고 이같은 임무들은 적의 파괴정도와 재공격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작전임무를 순환시키는 피해판정임무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된다.

이렇게 독일군에 의해 개발되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발전된 전격전의 개념은 지형에 의한 작전상의 장애를 수직으로 우회하고, 기술상의 한계로 인한 작전상의 장애를 항공력의 속성을 응용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항공력의 운용사례는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운용방법으로 보통군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되어져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당면한 적을 눈앞에서 제거하는 것보다 더 확신을 주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평가한다면 항공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항공력의 속성을 충분히 살리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타분야전략이나 여타작전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상군이 운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화포들과 전장지역유도무기 및 헬리콥터 등과 같은 무기체계들은 지상군이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훌륭한 화력보강수단이 되고 있다. 항공력 이외의 실현 수단을 두고 구태여 항공력과 같은 고도의 융통성과 유용성을 지닌 전투력을

지상 전투의 보조수단으로 묶어 두는 것은 대단한 전력낭비이다. 당시의 시대적 요구, 즉 그 당시에는 지상군에 의한 결전이 전쟁의 유일한 관전이라고 믿어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상결전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하나의 요소' 정도로 판단되었음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항공력 운용은 새로운 차원의 전쟁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분명한 가치를 지닌다. 이제 전쟁은 더이상 지상이면 지상, 해상이면 해상이라는 평면에서의 결전은 있을 수 없으며 어느 편이 얼마나 공간을 더 잘 활용하는가에 승패가 좌우됨이 증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쟁은 이제 완전한 삼차원공간에서 치뤄지게 되었으며 전장은 전선을 떠나 제 2제대지역 및 그 후방으로 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 3의 항공력 운용방법을 낳게 한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다. 연장된 힘으로서의 역할

이제 전략환경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군사력이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무턱대고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의 보편화와 교통통신의 발달은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이는 개개인의 의식을 고양시켰다. 개인의식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인류는 명분추구의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실리를 추구하는 현명함을 보이고 맹목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국가실리주의로 흐르고 있

다. 그리하여 세계사는 이제 탈냉전적 구조와 탈군사적 구조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 다른 한편 민족주의가 재현되거나 지역패권주의가 일어설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과학기술의 지원을 받아 격렬도가 높은 지역적 국지분쟁의 잠재성이 커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같은 전략환경하에서 앞으로의 전쟁은 종래와 같이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양상에서 정치적으로 제한되는 제한전의 양상으로 변화될 것이 기대된다. 전투의 양상은 전략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비선형전투가 일반화 될 것이며 격렬도가 높은 전투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불필요한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전쟁이 보다 진보된 형태의 전쟁이며 변화된 국제전략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쟁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어느때 처럼 대규모의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거대한 파괴를 통한 공포감으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은 민족의식의 자극, 정치적 반감, 국제적 비난 등등의 부정적 반응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같은 반응은 오늘날과 같이 상호의존성이 높은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택할 수 없는 공격 방식이 된다.

새로운 국제적 전략환경하의 새로운 전쟁은 다음과 같은 공격형태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선별적 파괴를 지향할 것이다.

선별적 파괴란 여러가지 존재된 표적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표적을 골라 외과수술을 통해 환부를 도려내듯이 점표적(Pinpoint Target)을 골라서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¹¹⁾ 통상 국가지도기구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들은 적의 공중공격을 피하기 위해 대도시의 민간지역에 자리잡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하면 비전투원인 민간인들의 피해를 염려한 공격자측이 무차별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국민을 인질로 하는 방패막이 구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격자측은 명중도가 의심스러운 보통의 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투하정밀도가 높은 정밀유도무기(PGM : Precision Guided Munition)를 사용함으로써 민간지대에 대한 불필요한 파괴의 확산이나 과잉파괴(Overkill)를 지양하면서 특정표적을 파괴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 개념은 핵전략에서 발상된 대군사력전략(Counter Force Strategy)이 전자기술 등 통상무기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정밀도와 파괴력이 신뢰할만한 수준으로까지 증가됨으로써 재래식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전용되어 발전된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체계적 파괴를 지향할 것이다.

체계적 파괴는 연계성을 가진 조직이나 구조의 체계내에서 특정부분을 파괴함으로써 연관된 체계가 모두 마비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방식으로써 군사시설, 산업생산

註11) 이러한 개념은 두해가 일찍이 그의 저서 The Command of the Air에서 제시하고 있다.

설비, 복합적인 무기체계, 항공작전기지 등이 체계적 파괴의 표적이 된다. 이때 역시 노력의 낭비나 전투력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량의 전투력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정밀하고 강력한 전투력을 은밀히 침투시켜 체제내에 치명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자 한다.

끝으로 누적적 파괴방법이 계속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누적적 파괴란 파괴를 그야말로 하나 하나씩 양적으로 적산해 나가는 것이다. 목표를 선별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체계적으로 파괴했을 때 그것은 적을 완전히 괴멸시킨 것이 아니라 기능적 마비를 가져오게 하여 조직적인 저항을 못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부분적인 항거가 있을 수 있다. 선별적 또는 체계적 파괴를 행한후 잔당을 소탕하거나 나머지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누적적 파괴의 방법으로 공격한다. 즉 체계적인 공격에 의해 이미 기능이 상실되거나 무력화된 야전군이나 기타 전투요소에 대한 소멸적 파괴이므로 항공력운용 제 2의 방법과 맥을 같이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것은 제 2의 방법이 제 3의 방법에서 완전히 배척된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수용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공격방법을 시행할 때에는 정밀유도무기보다는 통상의 일반폭탄이나 지역제압무기, 지역의 사용을 거부하는 무기들, 대형괴멸무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제3의 항공력 운용방법은 중심깊은 힘의 투사를 통한 조직적인 전쟁의 수행을 지향

하며 이러한 전쟁수행방법이 전환기의 전략환경이 요구하는 작전양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이 전쟁과 전투현상에 폭넓게 전환되려면 전쟁의 여러 양상을 적절히 분류하여 알맞은 방책을 택하고자 하는 전쟁스펙트럼의 면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적 전략개념”이라는 제한요건이 없지 않다. 수행하고자 하는 전쟁이 어떤 구도를 그릴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여 각 단계별로 건전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앞의 두가지 운용방식과 큰 차이가 없겠으나 제3의 방식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복잡한 현대전을 수행하는 데에는 훨씬 유용할 것이라는 점과, 오늘날의 고도화된 군사과학 수준이 그 개념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도에 와 있다고 판단됨으로 이 개념은 실행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결 론

오늘날 전환기에 처한 항공력은 전통적인 군사수단의 하나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충분한 성격과 역량을 갖고 있다.

지상군의 공간활용 경향과 해상군의 공중공간 활용은 현재와 미래전에서 필수조건화 될 것이고 각군의 무기체계 발전향방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이 전통적인 균형과 공중을 이용하는 각 군종간의 경험공유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현상이다.

결론적으로 항공력(The Air Power)은 종래의 타전략의 수행 과정을 돕는 부분전략으로서의 역할에서 그 자체가 국가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결전전략으로서의 역할기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장차전에서는 그같은 항공력 운용 개념이 국가의 전쟁계획과 군사전략의 수립과정에 크게 적용하리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반면에 역시 항공력은 그 연륜이 일천한 만큼 연구의 깊이도 상대적으로 얕아서 인류의 역사와 그 역사적 깊이를 같이 해온 육·해군의 전략만큼 성장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자원의 투입이 요구된다. 팔십여년의 짧은 시간동안에 이만큼 성장한 것은 그 발전의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의 간접적 대변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과학기술에 걸고 있다면 항공력에 관한 이해는 생존의 필수요건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